



GE, 에이온휴잇 선정 '2014 리더를 위한 최고의 직장'

- GE, 인재개발에 매년 10 억 달러 이상 투자
- GE 최고 경영진, 차세대 리더 양성에 업무시간의 1/3 할애

2014 년 11 월 21 일, 서울 - GE 는 세계적인 인사관리 전문 컨설팅기업 에이온휴잇(Aon Hewitt)이 발표하는 '2014 리더를 위한 최고의 직장(Top Companies for Leaders) 1 위'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에이온휴잇은 2001 년부터 전세계 기업들의 인재 관리 및 리더십 양성 관련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리더를 위한 최고의 직장'을 선정해 왔다. 올해 1 위에 오른 GE 는 우수한 리더십 프로그램과 기업 문화, 사업 방향과 일치하는 리더십 전략,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리더 양성 역량 등을 인정 받았다. 바로 직전 조사였던 2011 년 조사에서 GE 는 11 위를 기록 해 올해 괄목할 만한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GE 는 리더십 개발과 인재양성을 기업 문화의 일부이자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여겨 왔다. GE 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 130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리더십에 대한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 글로벌 인재 사관학교로도 알려진 GE 는 전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직급별 리더십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4 천명의 차세대 리더들이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으며, GE 고위 임원의 약 30%가 실제로 이러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GE 는 인재 교육에만 매년 1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2008 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직원 교육 관련 비용 만은 줄이지 않았을 정도이다. 리더 양성에 대한 GE 임원들의 열정도 남다르다. 제프 이멜트 회장을 비롯한 GE 고위 임원들은 자신의 시간 중 30% 가량을 차세대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하는데 할애한다. 이는 GE 의 리더십 철학에서도 잘 드러난다. GE 는 임직원 개개인을 한 명의 리더로 보고, 한 명의 성장은 곧 조직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GE 코리아의 강성욱 총괄사장은 "GE 는 인재가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믿음 하에,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견인해줄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리더를 위한 세계 최고의 직장'에 GE 가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에서도 인재 양성에 대한 GE 의 글로벌 역량을 적극 활용해 많은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E 는 올해 에이온휴잇 외에도 링크드인(Linkedin)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업 Top 100 (The World's 100 Most In Demand Employers)', HR.com 의 '리더십 500 엑셀런스 어워드(Leadership 500 Excellence Awards)' 1 위, 찰리 그룹(Chally Group)과 치프 이그제큐티브(Chief Executive) 매거진의 '리더를 위한 최고의 직장(Best Companies for Leaders)' 3 위, 그리고 헤이그룹(Hay Group)의 '리더십을 위한 최고의 기업(Best Companies for Leadership)' 2 위에 선정되는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GE 의 우수한 리더십 프로그램 및 문화를 인정받았다.



GE에 대하여

GE는 중요한 일을 구현합니다. 최고의 인재와 기술로 최대 난제를 해결합니다. 에너지, 의료, 가정, 수송과 금융에서 솔루션을 찾아 냅니다. 세계를 짓고 건설합니다. 세상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세계를 이동시키며 치료합니다. 상상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GE가 실현합니다.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www.ge.com)

한국에서는 1976년 출범 후 첨단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협력하며 장기 동반자로 활동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 발전, 석유와 가스, 헬스케어, 수처리, 가전과 조명, 운송, 캐피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1,400여명의 직원들이 제공한다.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www.ge.com/kr)

문의

GE코리아 김수연 차장 (T: 02-6201-4023)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도윤/조현지(T: 6323-5074, 5053)